

##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특기할 불멸의 대강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0월 17일 당간부양성의 최고전당인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 중앙간부학교 책임일군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혁명의 시원이며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로 되는 《E.C》가 결성된 뜻깊은 날에 교정에 모시는 꿈만같은 영광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영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중견간부양성의 원종장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여온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당간부대렬의 장성강화에 적극 공헌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당중앙과 뜻과 의지, 실천을 같이하며 당의 강화발전과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강령의 빛나는 실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더욱 견결하게 분투해나가기라는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교내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친필비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비롯한 학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교육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중앙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새시대 우리 당건설 방향과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력사적인 기념강의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는 우리 당중앙



이 직접 지도하는 당간부양성의 원종장입니다.

장구하고도 영광진 우리 당건설사와 투쟁사에는 중앙간부학교가 이룩한 커다란 공헌이 새겨져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당초기에 중앙간부학교를 창설한것은 매우 정당하고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해방후 건국, 건군위업을 걸머지고 령도하는 우리 당앞에는 자기의 당력량을 급속히 확대강화하는것과 함께 장차 사회주의 집권당으로 발전해나간데 필수불가결한 조직적기초와 사상리론적기초를 닦아야 할 중대한 임무가 나섰습니다.

수령님의 선견지명한 발기와 령도에 의하여 혁명의 당면과업과 전략적, 력사적 임무에 부응할수 있게 1946년 6월 1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당간부들을 키워내는 상설적인 당학교가 창립되었습니다.

중앙당학교가 창립됨으로 하여서 우리 당은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초부터 핵심들간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심도있게 해결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원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는 혁명의 년대기들마다 부여된 사명에 맞게 능숙한 자기의 간부력량을 끊임없이 육성하고 제시되는 당의 사상과 로선, 정책을 리론화, 종합체계화하면서 당의 조직사상적강화와 령도활동을 교육실천적으로, 학술적으로 옹호하여왔습니다.

학교가 배출한 수많은 당일군들과 인재들은 당과 국가건설, 혁명투쟁의 각

방면에서 능숙하고 견실한 활약으로써 대중을 선도하는 모범을 보이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혁명위업에 대한 높은 책임성과 진지한 연구태도, 실속있는 교수전략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집권당의 투쟁을 믿음직하게 안받침하는 판독있는 교육진, 리론진이 있는것은 시종일관 우리 당의 자랑으로 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80년을 가까이하는 자기의 집권사를 100년, 아니 그 이상의 장구함으로 무궁하게 이어놓아야 할 책임적인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차지한 위치와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막중합니다.

원수님께서서는 혁명발전의 새시대에 부합되게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 령도술을 높여나가는 력사적투쟁행정에 탐구, 정립되고 실현되고 있는 중요한 사상들과 리론들, 실천경험들은 당간부 육성사업에 적극 구현되고 지체없이 학술적으로 종합체계화, 풍부화되어 전당강화와 전망적발전에 작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당이 자기 발전행정에서 이룩한 성과와 새시대 당건설방향, 학교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적인 문제들을 론술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시대 조선로동당건설방향에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중앙간부학교가 부과된 혁명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중앙간부학교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간다면 교원진영을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학교당위원회 기공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중앙간부학교가 우리 당의 당건설증시사상과 후비육성정책을 받들고 앞으로 우리 당이 50년, 100년, 몇백년의 후사도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유능한 당일군, 능숙한 정치활동가들을 키워내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당 간부육성사업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하여 힘차게 일해나간다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기념강의를 마치시자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우리식의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접하게 된 무한한 감격에 넘쳐 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환호성과 우렁찬 박수가 장내를 진감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10월 16일 만경대혁명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여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그날 시간이 바빠 학원을 다 돌아보지 못하였는데 주말에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천금같은 시간을 내어 찾아오신 자애로운 아버지원수님을 맞이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가 학원의 교정에 차넘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현지에서 만경대혁명학원 책임일꾼들이 맞이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교육조성실, 저격무기강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학원의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학원에서 현대화된 교육시설들을 적극 활용하는것과 함께 세계적으로 앞선 교수방법들과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교육의 질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원기둥, 원피줄기인 혁명학원의 학생들을 문무를 겸비한 견결한 혁명가, 우리 당의 교대자,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자면 건전한 사상과 우수한 지적능력, 건강한 체력의 소유자, 고상한 도덕문리가 몸에 꼭 배인 참된 인격자들로 준비시키는데 교육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학생들의 격술 및



수영훈련을 보아주시였다.

주체혁명의 역군으로서의 성장기를 유서깊은 혁명학원에서 보내며 혁명무력강화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지휘관후비로 준비하기 위하여 심신을 역세게 단련해온 학생들은 충천한 기세로 평시에 련마한 육체기술적능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졸업반학생들의 권총실란 사격도 보아주시였다.

학생들이 명중사격으로 런이어 만점을 쏠 때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못내 대견해하시며 환한 미소속에 선창으로 박수를 쳐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군대의 미래를 떠메고 나갈 군사인재후비들로 준비해가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사격에 참가한 그들모두가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아들들답게 우리 당의 핵심중의 핵심, 혁명의 기둥으로 활약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뜻깊은 기념사진

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오랜 시간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해 바치시고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식당에 들리시여 원아들의 식생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몸소 밥맛과 국맛도 보여주시고 원아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음식을 어떻게 가꿨을 때가 제일 맛이 있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며 원아들의 식생활을 그들의 구미와 영양학적요구에 맞게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혁명가유자녀모두를 자신의 살붙이로 여기시며 사려깊은 눈길로, 세심한 마음으로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헤아려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사랑속에 곱같은 행복의 시간이 흘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을 교수교양

에서 전국의 본보기학교, 모든 교육단위가 아득히 올려다보는 학교우의 학교로 만드는것이 우리 당의 혁명학원강화의 원칙적요구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핵심골간육성의 원동장인 혁명학원의 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고 학원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전체 학생들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우리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들로 값높이 내세워주시며 성장의 걸음걸음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원수님을 격정의 눈물속에 우리리며 만경대의 아들로써의 본분과 중대한 책임을 띠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당과 혁명에 절대충성하는 열혈의 혁명가들로 철저히 준비해갈 철석의 의지를 가다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학원을 떠나시기에 앞서 학원의 책임일꾼들에게 혁명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우리 당의 아들들인 원아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 또 다시 새기신 사랑의 자욱은 위대한 사상과 정신의 빛나는 계승을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만년대계, 혁명의 최종대사로 내세우시며 혁명가유자녀들을 당의 핵심골간, 우리 국가의 대들보로 훌륭히 키우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는 절세위인의 불같은 정의 세계를 전하는 혁명전설로 청사여 길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 경사스러운 10 월들에 인민이 받아안은 만복의 선물들

조선로동당창건 77돐을 맞으며 련포농산물농장이 준공되어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졌다.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게 될 은 실낱새생산지이다.

눈썹이 아득하게 펼쳐진 수백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은실들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조선로동당만이 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줄수 있는 인민사랑의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이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수많은 정당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어느 나라 당도, 특히는 그 어느 나라 집권당도 자기의 창건일에 인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창조물을 선물로 안겨주는것을 본분으로,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는 없다.

오직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는 조선로동당만이 자기의 생일에 의의깊은 선물을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가슴가득 안겨주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인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고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창건 기념일에 인민들에게 훌륭한 선물을 마련하여 안겨주는것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고 계신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주제102(2013)년 당창건기념일을 계기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진 기념비적창조물들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공화국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누리도록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종합적인 물놀이장건설을 친히 발기하시고 더전까지 잡아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형성안만도 113건이나 보아주시고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건설장을 찾으며 건설에서 자그마한 부족점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지도해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헌신속에 10여만m<sup>2</sup>의 방대한 부지면적에 각종 수조와 물미끄럼대, 물놀이기재들이 짝 들어찬 야외물놀이장과 실내물놀이장을 갖

춘 현대적인 문수물놀이장이 훌륭히 완공되어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문수물놀이장만이 아니다. 폭양이 내리쬐이는 삼복의 어느날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찾으시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살림집을 당창건기념일까지 앞당겨 완공하여 당의 선물로 안겨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고 비내리는 곳은 날 옥류아동병원건설현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는 아동병원을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선물로 주는것만큼 건설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고 설비들도 최상의것으로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이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 불같은 진정에 떠받들려 해마다 어머니당의 생일이 되는 경사스러운 10월들에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지게 되었다.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라선시 선봉구역 백학동, 미래과학자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룡악산비누공장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의 선경마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013년 10월)



옥류아동병원 (2013년 10월)



문수물놀이장 (2013년 10월)



미림승마구락부 (2013년 10월)



위성과학자주택지구 (2014년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2014년 10월)



평양육아원, 애육원 (2014년 10월)



미래과학자거리 (2015년 10월)



라선시 선봉구역에 일떠선 살림집 (2015년 10월)



류경안과종합병원 (2016년 10월)



룡악산비누공장 (2016년 10월)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2018년 10월)



련포농산물농장 (2022년 10월)



은파군 대청리 (2020년 10월)

하나하나가 다 인민들에게 보탬을 주고 기쁨을 주는 소중한 재부들이기에 인민은 령도자를 우리러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드는것이 아니겠는가.

진정 나라의 령도자가 해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선물을 구상하고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불철주야 헌신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볼수 없는 일이다.

더우기 공화국이 적대세력의 가중되는 압박과 련이 자연재해가 겹쳐드는 어려운 속에서 이런 소중한 선물들을 마련하여 인민에게 안겨준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만복의 선경들은 오로지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고 인민이 바란다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주실 숭고한 사랑과 정을 지니신 자애로운 어버이인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마련하여 인민에게 안겨주시수 있는 가장 귀중하고 값진 선물들인것이다.

이번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인민에게 안겨진 소중한 선물인 련포농산물농장 보아도 결코 수월히 마련된것이 아니다.

레넌과 달리 올해는 적대세력의 압박이 극도에 달하고 여기에 돌발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조성되고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특히 련포농산물농장건설은 그 규모와 형식, 내용에서 아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방대한것이었다. 수백정보나 되는 넓은 부지에 1정보농실을 비롯하여 각

종 크기의 온실 수백개를 그것도 수경배배기술과 종합적인 영양분석체계를 비롯하여 선진적인 기술들이 도입된 최상의 수준으로 일떠세워 하였으며 1 000여세대의 살림집은 각이한 형식과 색깔로 농촌살림집건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워 하였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방대한 건설과제였다.

하지만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드림없는 신조로 올해 정초 련포농산물농장건설에정신을 찾으시어 강력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건설의 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건축이래 대동원이라고도 할수 있는 악성전염병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련포농산물농장건설은 우리 당의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며 공사가 중단없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련포농산물농장은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훌륭히 완공될수 있었다.

참으로 미증유의 격난을 이겨내며 굴함없이 전진해온 올해 투쟁의 상징과도 같은 장대한 련포농산물농장의 경관을 바라보노라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문명하고 부러운 새 생활을 안겨주시러 위민헌신의 령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끓이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하고 값진 재부들을 거둬들여 안겨주시면서도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다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전진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하시는 자애로운 어버이 경에하는 원수님 이시다.

어머님의 사랑은 진함을 모르고 그물을 알수 없듯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은 그 열도와 깊이에서 그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열렬한것이다.

그이께서는 얼마전 조선로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방문하시고 하신 기념강의에서 인민의 진정한 심부름꾼들로 되라고 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에 대한 좋은 관점과 태도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속에서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우리 당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인민에게 절대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전개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훌륭한 선물을 마련해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속에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위우에는 온 세계가 부러워할 천하제일강국의 래일이 하루하루 앞당겨져오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세상에 하나뿐인 위대한 어머니당

얼마전 조선로동당은 일흔일곱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이날을 맞으며 공장 농촌, 어촌을 비롯하여 이 땅 어디서나 공화국의 인민들은 경축공연, 경축무도회, 체육대회를 열고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을 자기의 진정한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였다.

이것은 해가 갈수록, 년월이 깊어갈수록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음을 말해준다.

하다면 조선로동당이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존엄높은 당으로 위용될지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그것은 조선로동당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며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기때문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올해 3월 초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인민의 리상거리가 일떠서고있는 화성지구에 나가서 력사적인 기념식수를 하시었다.

그날은 천지개벽된 화성지구의 새집들에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설 기쁨의 그날을 알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아가자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절한 호소와 장쾌한 착공의 발파축음소리가 울린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식수절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기념식수의 첫삽을 뜨셨을뿐 아니라 친히 집나무가 담겨있는 들보의 앞채를 드시고 구멍이가 있는 곳까지 날라오시여 정성다해 나무를 심으셨었다.

바로 이날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심으신것은 단지 두그루의 전나무만이 아니었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튼튼히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여기에는 전당의 초급당비서들이 당의 인민사랑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그 길에서 대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진정한 어머니당일군으로 살며 일해나가기를 바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그 어떤 폭풍에도 끄떡하지 않는 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집권당이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인민이라는 거대한 토양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오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우고 나중에는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이것은 이천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의 경위가 잘 말해주고있다.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깊어지는것이 아니다.

당이 인민의 존엄을 지켜주고 편익과 리익을 옹호하며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갈 때야 인민의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잡고 위용될지는 불패의 당으로 되게 되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은 탁월한 수령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여 인민의 운명의 보호자, 향도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시기부터 인민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주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여기고 이 사업에 선차적 힘을 부여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자기 활동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이인위천의 리념을 출발점으로 하여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현실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마치와 낮과 낮이 새겨진 조선로동당의 마크는 세계정당사에 전무후무한 어머니당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당을 명실공히 근로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인민대중

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을 길이 전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철학인 주체사상은 어머니수령님께서 창시하시었고 조선로동당이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방법도 그이께서 마련하신것이다.

수령님의 당건설위업과 업적을 순결하게 계승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도 일찍부터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오고 혁명도 시작한다고 하시며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는것을 자신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시었다.

그이께서 인민은 가장 숭배하는 하느님이었고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었다. 제일 힘있는 존재도 인민,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도 인민이었고 그의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이었다.

나의 한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나는 그늘 밑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며 한생

을 초탈처럼 태우신 그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위대한 헌신의 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령도자가 위대하면 당도 위대하고 당이 정치를 잘하면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것이 이 땅의 현실이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위천의 사상과 정치를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된 때로부터 지나온 10여년간은 공화국인민에게 있어서 힘겨운 시련과 난관의 련속이었다.

이 나날 인민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조선로동당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모진 시련속에서도 외로움을 몰랐고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힘든 줄 몰랐다.

제난을 당한 인민들은 군당위원회청사에서, 당일군들

은 천막에서 지내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당력사의 갈피에도 새겨진적 없는 전설같은 이야기며 고난을 겪는 지방의 인민들에게 수도의 따뜻한 손길을 이어준 미더운 수도당원사단의 투쟁이야기, 악성전염병류입이라는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자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염병치료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약품들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환자들과 어렵고 힘든 세대들을 도와나섰던 이 땅의 아름다운 화복

을 비롯하여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염병치료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약품들과 식료품, 생활필수품들을 마련하여 환자들과 어렵고 힘든 세대들을 도와나섰던 이 땅의 아름다운 화복은 끈난을 겪을 때일수록 인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고락을 함께 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적본래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생사를 내야 하는 위급한 순간일수록 인민을 더 뜨겁게, 더 힘껏 품어안고 진함없는 사랑과 정을 다 기울이는 것이 바로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이다.

바로 조선로동당을 이런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 그이의 인민사랑, 인민중시의 숭고한 리념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이께서는 하나의 로선이나 정책을 세워도, 하나의 창조물을 만들어도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절대적기준으로 삼도록 하시며 인민의 편의도모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하신다.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느냐.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철두철미 인민적이고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는데 지향되고 현실로 구현되고있는것이다.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산간문화도시로 삼지연시가 천지개벽의 새 모습을 펼쳐고 걸척지구에 사회주의 새 선경인 신안협곡도시가 일떠서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사

회주의문명이 융성된 리명거리, 창천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 룡강인민유원지, 류경린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평양대동강수산물시장, 류경치과병원, 옥류야동병원, 은정차음료공장 등이 땅의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인민의 리상향, 조선특유의 창조물들과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에서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인민적시책들은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가 뜨겁게 어려

었다.

얼마전 공화국이 국가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완결고착시킨것은 인민의 자주적언명과 존엄,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랑과 헌신의 최고발현이다.

돈으로도 살수 없고 강요로도 얻을수 없는것이 민심이다. 수백년을 헤아리는 세계정당들의 력사를 살펴보면 근로대중을 위한다며 활동한 당들이 수없이 많지만 조선로동당과 같이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온 나라의 남녀로소로부터 어머니당으로 칭송받은 당은 어제도 없었고 오늘에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것이다.

조선에서 당은 언제나 인민 곁에 있다.

인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언제나 다정하게 변함없이 울리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것은 인민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조선로동당의 후더운 손결이고 심장의 박동소리이다.

위대한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존재방식으로 삼고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선로동당의 세련되고 립속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광명인 미래만이 펼쳐져있다는것을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에서 다시금 굳게 확신하는 공화국인민들이다.

박경원



10월이다. 어머니당이 또 한차례 자기의 뜻깊은 생일을 맞이한 영광의 10월과 함께 우리 집에도 하나의 경사가 있다.

런포은실농장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나의 아버지가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것이다.

### 수필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하는 중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세계곳지의 대규모은실농장건설을 몸소 주상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착공의 첫삽을 뜨신 그 날로부터 불과 몇달.

오늘 이처럼 최한 별천지 런포은실농장을 사랑의 선물, 변영의 제부로 인민에게 안겨주시고도 이 모든것은 오직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거듭 치하하시면서 나의 아버지를 비롯한 군인 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우리 가정의 기념사진들은 우리라는 나의 가슴에는 이름할수 없는 감격이 차오른다.

10년전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먼저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아직은 사랑을 받을출박에 모르는 나이, 고마움을 느끼기에 키도 마음도 너무나 작았던 열한살첫부터 나와 내포에 아이들이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원수님곁에 섰을 때 우리 가정, 아니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는 소년단원동무들이라고 정겹게 불러주시며

앞날의 강성조전은 동무들의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원수님의 축복을 영원한 화복으로 새긴 그대로부터 우리 집의 경사는 날로 늘어만 갔다.

몇년전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할아버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대를 두고

## 제일 큰 사진첩

전해갈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던것이다.

로병동지들이 곁에 앉아만 계셔도 힘이 된다고, 앞으로 무병무탈해서 로당익장하시라고 거듭 당부하시며 송고한것을 드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영상이, 위대한 전승세대 영광의 단상에 빛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영웅세대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간직할 숭고한 도덕의리의 귀감이 할아버지가 받아안은 기념사진에 새겨져있다.

그런데 오늘은 군관인 아버지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으니 우리 집은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집에만 차려진 행복만이 아니다. 저 멀리 외진 장재도의 함명이네 가정에도, 수령결사옹위의 비행운을 새겨가는 충도네 집에 오직 못할 사랑의 기념사진이 있다.

피아하가의 그림습씨도 보아주시며 아버지의 축복을 남긴 창천거리 그 집에도, 근로하는 인민의 행복 끝없는 경부동과 다수학생민, 영웅직포공, 교육자, 과학자, 세포비서, 어로공 등이 사는 이 나라의 수많은 가정에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온 나라 가정들에 모신 기념사진들이 다 담긴 원수님의 사진첩은 얼마나 부피가 두터울것인가.

아마 그 사진첩의 갈피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중속에 착박있는 인민의 정겨운 모습들이 새겨져있을것이다.

동무들이 보고싶을 때마다 펼쳐보셨다니던 갈나무초소의 녀성군인들도 그 뜻깊은 사진첩에 있고 세상애 부

해 사랑의 러정,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고계신다. 인민들은 태양의 존안이 모서진 불멸의 화복들을 심장에 새기고 보답과 충정의 열의를 불태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첩에 간직되어있는 우리 집의 기념사진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웨치고있다. 령도자와 인민의 품을해야 품을수 없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과 정이 가득 담긴 불멸의 화복들이 수록되어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첩, 그것은 정녕 자애로운 어머니를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인민만이 지닐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사회주의대가정의 제일 큰 《가족사진첩》이라고.

본사기자 박진홍

## 여기서 꽃피고 주렁지여관

리 송 일

하늘의 은하수 통채로 내렸는가 동해기슭 드넓은 런포지구에 가없이 펼쳐진 눈부신 은빛세계 불수룩 황홀해라 런포의 보배농장이여

비린 바다바람만이 스치던 이 땅에 풍겨오는 남새향기 청신도 하오 이 어린 천지개벽인가 어서 보자 동해의 파도도 같이 쳐들어 끝없이 이곳으로 달려오는듯

어느곳이더냐 환겨울의 찬바람이 모래를 말아올리던 허허벌판 이곳에 찾아오시여 하나하나 건설살도 가르쳐주시며 우리 원수님 오래도록 서계시던 곳이

그이 서계시던 그곳에 그이 그려보신 남새바다 펼쳐졌구나 몸소 착공의 첫삽 뜨시고 발파단추 누르셨던 그 자리에 한쪽의 명화처럼 선경마를 일떠섰구나

입맛 잃으면 《남새일서리》라며 남새를 귀를로 여기던 함남평인민들 이제는 사철 신선한 남새 받아안게 되리랴

그것이 너무나 기쁘시여 완공의 그날 원수님은 그리도 환히 웃으셨나니

두손에 받아드신 그 열매는 그대로 인민이 받아안은 행복의 열매

남새철에조차 남새가 바르던 함남 땅이 이제는 온 나라에 남새자랑을 하게 되었으니 불수룩 놀라워라 동해의 푸른 바다도 무색케 할 남새바다 펼쳐질 런포의 새 모습이어

아, 인민을 위하시는 원수님 사랑 그 사랑이 떠올린 런포은실농장 여기서 인민이 누리는 복락의 웃음이 활짝 꽃피어라 여기서 만복의 열매 주렁지여라

### 사랑글아 서여주신 이름들

## 《민들레 학습장공장》

공화국사람들은 민들레라 하면 제일먼저 《민들레》 학습장을 떠올린다. 오늘은 누구나 다 알고 사랑하는 《민들레》 학습장과 민들레학습장공장이자.

이 공장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속에 일떠선 현대적인 학습장생산 기지로서 전국의 유치원으로 부터 대학에 이르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공급할 학습장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이 땅에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주체104(2015)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학습장공장건설을 발기하시었고 그후 형성안도 지도해주

시였을뿐만 아니라 공장이름을 《민들레학습장공장》으로 명명해주셨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불아오려고 책동하여도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머리에 펼쳐진 민들레 홀날리는 조국의 맑은 하늘을 가리울수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견본으로 생산한 학습장들을 보아주시고 학습장의 갈래에 몸소 《지덕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세상에 부럽없어라!》를 비롯한 뜻깊

은 친필들도 남기시었다. 원수님께서 공장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새로 건설되었을 때에는 몸소 찾아오시여 자신께서는 민들레 학습장공장에서 생산한 학습장을 보여 정말 기뻐하셨고, 질 좋은 학습장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생각하니 춤이라도 추고싶은 심정이었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을 꿰매주는 어머니들의 심정을 안고 질 좋은 학습장을 더 많이 생산하여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안겨줌으로써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안겨지게 해야 한다고 하시었다.

그후 뜻깊은 국제야동절을 맞으며 혁명학원, 초등학원, 중등학교, 체육원들과 장재도, 무도를 비롯한 섬소학교 학생들과 원아들을 비롯하여 전국의 학생들에게 민들레학습장공장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멋진 학습장들이 가슴가득 안겨졌다.

뜻밖의 자연재해를 당한 북부해지역에 세멘트, 강재보다 《민들레》 학습장이 먼저 가닿아 아이들을 기쁘게 했다.

공화국의 학생들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시신 사랑의 하늘이런들 《민들레》 학습장에 지식의 금자탑을 새겨가며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펼치는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동아들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총련의 오랜 일군들에게 영생의 삶을 안겨주시어

공화국의 력사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가장 뜨겁고 진실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시작되고 그 힘으로 전진해온 위대한 력사이다.

그 자랑차고 불멸할 로정에는 총련의 일군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 있다.

주제 84(1995)년 7월 8일 어머니수령님의 서거 1돐에 즈음하여 조국에 온 총련주도대표단의 한 성원이었던 박정현 제1분대 조선민주주의적통일전선위원이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병원에 실려 갔을 때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의 오랜 간부들 기어오 살려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화국의 유능한 의로진을 무어주시고 그를 생생시키기 위한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려 주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로 물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 그를 생생시키려고 마음쓰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애석하게도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는 비보를 받으시고는 갈리신 음성으로 화환을 보내주며 그를

심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고 신문 《민주조선》과 《통일신보》에 부고를 내도록 하여야겠다고 교시하시었다.

다음날 장의식장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얼굴을 더욱더 바라보시다가 박정현상임고문은 해방직후부터 바람세찬 일본땅에서 일을 많이 한 훌륭한 동무였다고.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찾된 삶을 꽃피운 그는 한생의 총화를 아주 훌륭하고 깨끗하게 지은 총련일군이었다고 어머니였다고 하시면서 그의 한생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의 자식들에게 한생을 어머니수령님께 충실하여 온 훌륭한 어머니를 모시고있었다는 긍지감을 가지고 일을 잘하라고 하시면서 상임고문의 부락대로 자신께서 잘 돌봐주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떠나간 총련일군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져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에 고인의 유가족들과 총련의 책임일군들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있다. 그러나 조국으로부터 떠나면 이역에서 숨진 한 동료교육자의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인생 말년에 삶의 바른길을 찾은 해외동포인사 (1)



림형성선생

한 인간의 인생행로에서 출발의 방향각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것은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식민지민족의 운명을 태초처럼 감고 태어난 불우한 수난자의 한사람이었던 림형성 선생의 인생행로가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하다면 림형성선생은 어떻게 한생을 방황하다 인생말년에야 민족단합의 거창한 대하에 합류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비록 늦게나마 민족단합을 위한 애국의 길에 뜻을 심고 심신을 바쳐온 선생의 삶의 체취와 흔적은 오늘날 겨레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 ※ 림형성선생은 황해남도 은륜군 은륜읍에서 심리 떨어린 바다가마에서 당시 땅마지기나 가지고있던 림보승의 넷째아들로 1909년 10월에 태어났다.

선생은 어렸을 때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한다. 차근차근하면서도 치밀하고 대가 바르며 한번 생각했던 일은 끝까지 하고야마는 성품은 후에 선생의 의식발전에 큰 작용을 하였다.

선생이 열살 참히던 해인 1919년 3.1인민봉기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선생이 살던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일제히 일떠섰다.

선생의 아버지와 만형, 백부과 사촌형 등 일가도 3.1인민봉기대렬에 합세하였다. 후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반일사상은 단순한 감정문제, 자유문제나 아니라 사활문제다. 3.1운동은 세월이 멀어져갈수록 더욱 우리의 가슴에 깊이 안겨진다.》

그후 검거선봉이 휘몰아치는 속에 선생의 아버지는 물론 형제들이 줄줄이 일제경찰에 잡혀가 악형을 당하게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 평양에 온 선생은 평양상실전문학교를 다니었다.

1930년대초에 선생은 미국유학길에 올랐고 미국 라파에르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그 대학에 동양인이라고는 선생 한사람뿐이었다. 선생은 학업성적이 뛰어나 총명하기로 이름났으며 연설도 잘하여 학교적으로 용변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사실 선생은 반일의식은 강했지만 활동방략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러다나니 모태 김숙에 좌왕우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학공부를 하고 뉴욕 《한민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선생은 처음에는 개화정치로 독립투쟁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에 몸을 담그었다. 개화사상의 영향을 받으며 선생은 개화정치를 지향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결코 조선의 독립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선생은 프린스턴대학 선배였던 림정주 미위원회 책임자 리승만 그리고 교포친로이고 《독립신문》 첫 발간자, 갑신정변의 참가자인 서재필과 해방될 때까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림정에 대한 승인을 얻고 원조를 기대하는 독립정찰을 벌렸다.

호선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끄는 국민회에 가입해 반일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가 동떨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후날 리승만이 해외교포사회의 단합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교포사회에 용이처럼 뿌리박힌 파벌과 파쟁의 악습에 환멸을 느끼기도 하였다.

선생은 리승만의 독단과 《독립운동자》 등의 파쟁에 환멸을 느꼈고 어느 당파나

또는 어느 정치인을 위해 일한다면 조선독립에 유익한 일을 할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그런 속에 나름대로의 활동을 모색해오던 선생은 미국 전쟁공보 및 정보문서원으로 정부에 고용된적이 있었다. 여기서 선생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조선문제에 대하여 화제를 올리고 지지자를 모으려고 했다.

하여 얼마후 선생의 발기하에 조선은 완전독립되어야 한다는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조선프린스턴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선생은 여기에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에드워드 코언과 같이 자유주의적지성인들에게 조선독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들과 함께 조선학생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 나날에 선생은 자신의 반려자이자 동지였던 리보배를 만났다. 선생은 비록 미국땅에서 살지만 자녀들이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해방이 되자 선생은 미군정사령관 하지의 수석고문으로 귀국하는 서재필의 서기로 남조선에 돌아왔다. 선생의 마음속에는 미군정이 실시되는 남조선땅에서 민족을 위해 마음껏 정치활동을 해볼 야심찬 결심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조선은 정의와 량심이 무참히 짓밟히는 인간지성의 불모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있었다.

하여 선생은 1949년 다시 미국으로의 이민의 길을 택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의 모자를 벗어던진 힘이 없던 선생에게 있어서 그 길이 애국의 길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 개시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 25기 제 1차회의 도요에서 진행—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1차회의가 얼마전 일본 도요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우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 남승우, 배진구, 조일연, 송근학, 서충언부의장들, 재정위원회 위원장,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 상임위원들, 총련본부위원장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총련중앙 참사, 부국장, 중앙감사위원들이 방청하였다.



총련본부위원장회의 제25기 제1차회의 모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연주되었다. 허종만의 주의를 이어서 박우호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 하는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각계각층 등도중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우리 국가체일주의시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위대한 김정은시대 재일조선인운동의 불멸의 백과사전이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승리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한 최후의 설계도, 실천강령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이번 회의의 목적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강령적서한을 어김없이 관철하기 위한 일대 군중운동을 벌릴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전 조직이 서한관철에 총력기해나서도록 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총련은 《강령적서한관철을 위한 전형창조운동》을 전조직적인

대중운동으로 벌릴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는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교리는 모든 조직, 전체 일군들과 비전일성자들을 주역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자신들의 결심에 따라 운동을 주도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본부위원장들이 진행창조에서 사상적종자와 기본주제를 정확히 틀어쥐고 운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오늘 본부위원장들에게 나선 의장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한에서 가르쳐주시신대로 총련과 동포들의 혼연일체 총련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혁명적기백과 조직정치사업으로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서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기어이 새로운 경행,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 경에 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라고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행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서한에서 가르쳐주시신대로 총련과 동포들의 혼연일체 총련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무이한 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혁명적기백과 조직정치사업으로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서한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기어이 새로운 경행, 새로운 전형을 창조하여 경에 하는 원수님께 기쁨의 보고를 드리라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9)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통하여 기고만장해진 미군부는 1998년에 들어와 북침전쟁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편 《북조선으로 쳐들어와 갈것을 예견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완성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제2의 조선침략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제3국의 출판물을 통해 공개하면서 공화국을 위협하였다.

《작전계획 5027》은 미군과 남조선군이 공화국을 《선제공격》하여 《붕괴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국히 침략하고 모험적인 전쟁계획이었다. 미국은 이 계획을 령전말기에 《남침격퇴》형으로 짜놓았다가 령전종식후에 《북진통일》형으로 수정해 놓고 철저한 비밀에 붙이고있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공개한것은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며 저들과의 대결과 협력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일종의 최후통첩이었다.

같은 해 11월하순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대통령은 전례없이 남조선강경 미군부대들의 동원상대와 비행대의 출동준비상대까지 최종결정하면서 《미국은 미군과 일방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으며 능력도 있다.》고 장담하

였다. 때를 같이하여 합동참모본부의장을 비롯한 미국방성 우두머리들과 록헤공군 3성군사령관들, 7함대 사령관, 1, 3해병원정부대 사령관 등이 별질나게 남조선에 기여들어 전쟁모의를 거듭하였고 여러가지 명

## 관 한장의 성명분에 의해 불거름이 된 미국의 전쟁계획

청을 단 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었다. 평화나 전쟁이나, 화해나 대결이나, 누가 먼저 굽어들것인가. 세계가 숨을 죽이고 조선반도의 사태를 주시하고있던 주제 87(1998)년 11월하순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단호한 어조로 적들이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망상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식의 작전계획이 있다. 《외과수술식》 타격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것들은 결코 미국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 불과 불이 오가는 전쟁마당에서 《5027 작전계획》의 실행을 주도하는 미제침략군 뿐 아니라 ... 위에서 기지를 제공하거나 심부름을 하는 일본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모두가 우리의 타격목표로 된다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김금영

12월 2일, 드디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미국이 짜놓은 《작전계획 5027》의 침략성에 대하여 신랄히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하였었다.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은 결코 종이장우에 쓴 빈말이 아니었다. 세계사전문가들은 《핵심제공격능력》은 미국만 있는것이 아니다. 《북의 주장이 무시할 일만은 아니라고 하면서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의 현실적인 군사적당부에 대하여 미국에 경고하였다. 독단같은 12.2성명이 나가자 미국은 너무나 치명적인 일격에 넋을 잃은듯 짝소리 한마디 내지 못했다. 한미백산한 미국은 뒤수습에 급급하였다. 《큰 산이 울어서 보니 겨우 들리하마라》라는 말이 있지만 세계를 울리는듯싶던 미국의 《작전계획 5027》을 통하여 저들을 정치군사적경계로 몰아넣는 결과만을 가져왔던것이다. 단 한장의 성명분에 의하여 공화국을 《선제공격》하여 지배하려던 미국의 전쟁계획은 물거품으로 되고말았다.

남조선에서 일본것들과의 《안보협력강화》에 열을 올리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조선통태상에서 일본것들과 연합한잠수함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련이어 벌려놓는데 이어 일본수상과의 전화대화에서 그 무는 《군건한 안보협력강화》에 대해 제쳐냈다. 《안보협력》의 외과를 쓴 용납 못할 친일매국배적당들이 아닐수 없다. 일본이 우리 나라를 40여년간이나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로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뜨은 백구대천의 원수반드시 피의 대가를 벌야내야 할 친일매국배적당들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파렴치한 일본은

매망 80년이 가까와오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친인공노할 과거죄악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독도를 제방이 라고 우겨대면서 군국주의적침략행위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일본방위성것들이 2023년도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책정하면서 지상대해상미사일인 사거리를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의 연안지역에까지 도달할수 있도록 대폭 늘이고 이를 함선과 비행기에도 장착할수 있도록 개조하며 극초음속미사일개발과 장거리공중대지상미사일, 합동전략미사일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할당할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최근 일본것들이 요란스럽게 떠는 《북조선 핵 및 미사일위협》이라는것도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의 명분을

을 강화하는데 조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느니, 령전시기부터 반잠수함능력을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일본이 참가한 연합훈련은 큰 도움이 된다느니 하는 여론을 내둘리다 못해 남조선 각계의 반발에 《북의 논리에 따른 반일선》으로 매도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궤변으로도 저들이 저지른 엄청난 친일매국범행을 감출수는 없는 법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과 망해가는 저들의 운명을 지탱하기 위해서라면 천년수적과도 꺼리낌없이 결탁하고 민족의 운명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것도 서슴없는 민족반역의 무리이다.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매국배적행위를 일삼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박병방

한미일군사동맹 적극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한미일군사동맹 적극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국배족척행위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국배족척행위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국배족척행위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국배족척행위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국배족척행위

섬나라족속들에게 침략의 길안내를 해주는 매국배족척행위



절세위인들과 총련



락랑 박물관을 찾아서 (1)

락랑문화를 후세에 전해 주는 교양거점

공화국의 민족문화유산보 호정책에 의하여 최근 우리 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락랑박물관이 훌륭히 일떠서 준공되었다.

지역적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한 청천강이남으로부터 레성강유역에 이르는 중서부조 선일대에 분포되어있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B.C. 3세기 이전부터 A.D. 4세기 전반기 까지를 포괄한다.

류의 무덤들과 무기장구류, 마구 및 수레부속품류, 목치 레거리와 용기류 등이 있다. 얼마전 락랑박물관을 찾은 우리에게 남경희책임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락랑지구의 가치 있는 고분들을 한곳에 집 결시켜 박물관을 꾸리고 주

변을 공원화할대 대하여서와 유적유물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와 보살피심에 의하여 력사 교양구와 민속놀이구, 휴식구 등으로 구성된 락랑박물관이 훌륭히 완공되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있다고 그는 말 하였다.



올 림 폭 폭

강원도 천태군에 위치하고있는 폭포로서 높이는 75m이다. 이 폭포는 장엄한 폭포소리가 온 골안을 울리며 멀리로 메아리쳐간다고 하여 올림폭포로 불려왔다.

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올림폭포의 장쾌한 모습과 불수록 유정한 주변경치는 그야말로 아름답다.



속담과 뜻
◆ 빈달구지 굴러가는 소리가 더 요란하다.
◆ 달로는 하늘의 별도 많다.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영명사 돌사자

고구려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 가운데는 영명사 돌사자도 있다. 일반적으로 돌사자 조각은 불교전설과 많이 결부되고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찰에 세워졌던것과 관련된다.

영명사 돌사자는 고구려인민들이 지녔던 용맹한 기상과 굳센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다. 영명사 돌사자는 현재까지 2개가 남아있다. 하나는 높이가 84.5cm이고 다른 하나는 높이가 88cm이다.



사 화 연암동과 박지원 (2)

연암은 이번에도 금학골에 있는 량씨네 집 별장에 려장을 풀었다. 이 집은 연암이 개성으로 오가면서 사친 량정맹이라는 젊은이의 집인데 풍월을 즐긴 그의 아버지 량씨로인은 꽃과 나무를 심고 집과 뜰도 깨끗이 거두고 동례로 인들과 함께 활쏘기와 장기, 가야금과 술로 소일을 하는 풍류객이었다.

당시의 돌가공기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영명사의 돌사자는 고구려인민들의 역센 기상과 뛰어난 돌가공기술을 찾아볼수 있게 하는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
옥류 아동 병원
과장 리철진
리철진 옥류아동병원 과장은 일부 나라들의 독점물품이었던 심장수술용소모품을 국산화하기 위한 피나는 사색과 탐구를 기울였다.

천연기념물
갑산비슬나무
갑산비슬나무는 갑산군 송암리에 있는 천연기념물이다. 높이 22m, 밑동둘레 7.2m이다. 원래는 골짜기 올라가다가 한곳에서 수십개의 가지들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특이한 모양을 이룬다.

가을철 건강관리
가을철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하므로 호흡기계통과 순환기계통의 병에 걸리기 쉽다. 이러한 질병들은 약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방하거나 치료할수 있다.

연암의 생애에서 평범한 보통날의 하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나 이 하루저녁의 이야기속에 연암의 큰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었다. 량반이랍시고 고루한 량반의 체면을 구어주지 않으려 했던 그는 더러 모르는것이 있으면 지나가는 종을 불렀고서라도 물어야 한다는 연암의 이런 평민적인 모습으로 하여 그의 인격은 더 커지는것이였다.